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3. 3. 16.(목)
담당 부서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우향제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044-200-2212)

한덕수 총리, 충청지역 수출기업 찾아 현장애로 청취

- 충남 아산 하나마이크론 찾아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 개최,
어려움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 예정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6일(목)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수출기업 하나마이크론(충남 아산 음봉면 연암울금로 77)을 찾아 충청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 * (참석) △(기업 관계자) 최창호 하나마이크론 회장, 김대종 골든아워 대표, 조강영 월드비엠씨 대표, 천홍석 트위니 대표, 유동일 엘에스일렉트릭 CPO
 -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이상준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박세범 충북본부장
 - △(부처·지자체)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종욱 조달청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천형식 충남 정무부지사,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
- 이번 방문은 수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 이날 한 총리는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의 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이상준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으로부터 지역기업 수출 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외국인 숙련인력 확충 ▲자율주행로봇 규제 개선 ▲수출 유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 특히 간담회에서 재난구조용품을 생산하는 골든아워는 해외 공공기관 수출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판매실적이 있는 제품이더라도 판매실적이 적은 경우 예외를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조달청장은 해당기업이 지원대상이 됨을 확인해주는 등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되었다
- 앞으로도 한 총리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계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오늘 하나 마이크론 회사에서 우리 충청권의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업계로부터 직접 듣고 또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역협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하고 우리 산업부 차관, 법무부에서도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사실은 2007-8년 국제 경제위기에서부터 출발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많은 돈도 풀었고 정부도 또 엄청나게 많은 투입을 했고요. 그것이 또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정부와 중앙은행이 또 돈을 풀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가 거의 10% 수준으로 올라갔고 해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금리를 급속히 모든 나라가 올리기 시작한거죠.

미국이 우선 거의 10%에 가까이 가는 인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미국과 연결되어있는 우리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너무 금리를 또 떨어져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위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전년도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하나 다행인 것은 저희가 90년대 말에 1차 금융위기 도 겪었고, 또 2008년에도 또 한 번의 국제적인 위기에 저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해서 ‘어떻게든 국가가 그런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노력은 집요하게 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은 낮아지고 여러 가지 국제 수지도 나빠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위기속에 다시 빠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고통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내외적인 평가로서는 그래도 우리, 국제적인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 한 몇일 전에 피치라는 회사가 우리 평가를 했습니다만, AA-그대로고, 또 그것도 안정적인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올해에도 위기가 다시 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굉장히 전력을 지금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였고, 세계 경제가 다 나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당연히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동안에 상당한 호황을 보였습시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중

국의 여건도 좋지않고 해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가지고 지금 관계부처, 민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진흥을 위한 비상회의를 계속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계십니다만, 총리인 저로서는 우리 업체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빨리 해결을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청지역의 수출기업인들과 처음 만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모임을 전국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러한 기업이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생산의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5군데를 저희가 일단 입지를 전국에 걸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 이런 입지를, 국가산단을 선정한 것이 한 7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올해는 15개를 선정을 하면서 최대한 이 산단이 조성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농지에 대한 사전협의, 그린벨트에 대한 이런 사전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해놓고 최대한 조성 시간을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는 한 3, 4분기부터는 조금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 세계 경제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팽창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분간 우리의 어려움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로서는 첫째는 경제위기는 막으면서 우리의 정책을 최대한 건전하게 이렇게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출의 사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반도체, 우리 하나마이크론에 와서, 우리 몇 분 기업인들도 오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어떤 문제라도 다 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최대한 우리 수출시장을 다변화 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출의 기본은 경쟁력이니까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 현장간담회 참석기업 개요

1 하나마이크론

	소재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설립일	2001-08-23
	대표자	최창호	분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솔루션

2 엘에스일렉트릭

	소재지	충북 청주시 송정동(청주공장)	설립일	1974-7-24
	대표자	구자균	분야	전력기기

3 골든아워

	소재지	충북 청주시 사창동	설립일	2019-10-18
	대표자	김대종	분야	의료기기, 안전용품

4 월드비엠씨

	소재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설립일	2002-9-18
	대표자	조강영	분야	인조대리석

5 트위니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설립일	2015-08-27
	대표자	천홍석, 천영석	분야	자율주행 로봇 및 솔루션 제공